



**전북체육회, 운동부 지도자 대상 스포츠인권교육**

전북체육회는 16일 도청 및 시군청, 도 체육회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인권교육을 펼쳤다. 이는 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과 가혹행위, 성범죄 등 선수안전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함이다. 이날 교육에는 전문 강사가 초청 돼 성인지 감수성,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전북체육회는 도내 운동부(학교·실업팀) 선수와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신준섭 사무처장은 "선수들이 마음놓고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깨끗한 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선수들의 권익 대변과 보호 장치 마련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진안 상천 주민자치위, 아이스팩수거함 설치**

진안군 상천면 주민자치위원회는 16일 17개 마을회관에 '아이스팩수거함'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수거한 폐 아이스팩은 매달 1회 이상 수거해 선별처리와 세척, 소독 작업을 거쳐 관내 전통시장의 필요로 하는 상인들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안기조 주민자치위원장은 "환경오염과 해양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스팩 재활용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환경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김수섭 면장은 "갑수족 심해자는 환경오염 문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불조심기간 인화물질 제거**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1일~12월5일) 동안 산림연접 및 인근지역에 대하여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추진하여 산발발생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무주국유림관리소 관할 5개 시·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남원시, 임실군에 대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72명을 인화물질 제거반으로 편성·운영하여 지역별 순찰을 통해 산불위험이 높은 곳부터 차례대로 제거사업을 실시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대한적십자사 남원지구협의회, 행복꾸러미 나눔**

대한적십자사 남원지구협의회(회장 정하복)는 16일 남원직접지원센터에서 건강특강과 행복꾸러미 나눔을 진행했다. 그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직접자 평생대학 개강을 미뤄왔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건강특강과 관내 직접자 평생대학 학생인 어르신 60명에게 행복꾸러미 전달하며 그간의 아쉬움을 달랬다. 정하복 남원지구협의회장은 "이번 행사로 그동안의 갈증이 해소되길 바라며, 다가오는 2022년에는 방역지침에 맞추어 평생대학 개강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농협 창립 60주년 기념' 일손 돕기**

전북농협 시너지협의회, 진안 인삼 재배농가 일손 도와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 시너지협의회는 16일 진안군 정천면 인삼농가를 찾아 '농협 창립 60주년 기념' 릴레이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전북농협 시너지협의회 회원 20여 명을 비롯해 정미경 농협진안군지부장, 신인성 전북인삼농협 조합장 등 범농협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삼밭 차광막을 철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협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는 정재호 본부장은 "최근 인삼 소비 부진에 따른 가격폭락, 생산량 감소, 경영비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삼재배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다"며 "많은 분들이 환절기 건강관리에 좋은 인삼을 통해 면역력도 올리고 지친 피로도 물리칠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농협 시너지협의회는 농촌일손돕기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의료진 감사방문, 법인별 관내 시군지부 합동 사회공헌활동 전개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전북농협 구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노블사회봉사단, 사랑의 김치·쌀 나눔**

전북농협 노블사회공헌봉사단(회장 이계순)은 이웃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전주지역아동센터 다담돌 그룹홈에 김장김치와 쌀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김장행사는 동화숙여린이집(원장 이계순)에서 부귀농협 절임배추와 양념을 직접 구입해 진행했다. 어린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김장을 담가 전북 지역 산동진 쌀과 함께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계순 회장은 "코로나19로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의 손길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며 "우리 전북농협 노블사회공헌봉사단은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사랑나눔을 실천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평화로타리클럽, 저소득층에 백미·마스크 전달**

전주평화로타리클럽(회장 김주표)은 16일 이기동 의원 및 회원들 10여명과 함께 중화산2동 주민센터(동장 오재수)를 방문해 백미 40포와 마스크 2000장(총 200만 원 상당) 등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백미 및 마스크는 중화산2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독거노인, 한 부모 가족 및 장애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전달됐다. 김주표 대표는 "참여해주신 회원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런 작은 정성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어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시, '희망2022 나눔 캠페인 힘차게 출발'**

남원시는 지난 15일 전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대표 김동수)와 '희망의 열매 달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희망2022 나눔 캠페인'을 앞두고 관내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 나눔 분위기를 조성하는 취지로 사랑의 열매달기, 이환주 시장 캐리커처 전달 차량 및 월동난방비 기탁 순서로 진행됐다. 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합쳐졌던 어려운 시기지만 작은 정성들이 모여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는 힘이 전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전북대 법전문재학생, 신규 검사·로클럭 4명 합격**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송양호)이 법무부의 2022년 신규 검사 임용과 재판연구원 선발 등에서 검사 1명과 재판연구원 3명을 배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16일 전북대 법전문대에 따르면 2022년 신규 검사 임용시험에서 김보성·손애빈·정범석(이상 3년) 학생이 합격했다. 합격자 모두 재학생으로 법전문대의 우수한 교육 시스템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대 법전문대는 올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출신 변호사 3명이 올해 경력법관(판사)에 임용되는 등 약진했다. 전북대 법전문대의 이 같은 지속적인 성과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수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 조치와 함께 1대 1 개별 지도와 방학 중 집중 지도 특강 유명 교수진을 통한 문제의뢰와 내부 교수진들의 참사지원 등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일련이다. /정은성 기자



**송천1동 지사협·사랑의 교회, 김장김치 나눔**

전주시 송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한경순)는 16일 송천1동주민센터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웃돕기성금으로 추진된 이번 나눔 행사는 5kg들이 김장김치(300만 원 상당)를 송천동 관내 저소득층 80가구에 지원했다.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사랑의교회 봉사자 20여 명은 정성으로 마련한 김장김치를 장애인·홀로 어르신·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 80가구에 직접 전달했다. /김윤상 기자



**노인일자리 참여자들, 성금 100만원 기탁 '훈훈'**

대한노인회 전북취업지원센터 불법촬영감시단(단장 김용학)은 16일 전주시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전주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35명으로 구성된 불법촬영감시단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 등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급여를 모아 성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학 단장은 "예전에 비해 경제적으로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도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면서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창수 대한노인회 전북취업지원센터장은 "노인일자리에 참여 중인 어르신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훈훈하다"며 치켜세웠다. /김윤상 기자



**꽃밭정노인복지관, 배식봉사·마스크 500박스 기부**

국제로타리 3670지구 서전주로타리클럽(회장 박지원)은 16일 평화동 꽃밭정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점심 배식봉사와 더불어 마스크 500박스(50만원 상당)를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한분 한분에게 직접 전달하며 훈훈한 온정을 나누었다. 박지원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온기를 담은 한끼 식사와 마스크 나눔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함께 소통하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클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서전주 로타리클럽은 1970년 창립하여 50여년의 깊은 역사를 지닌 클럽으로 주거환경개선 등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장애인체육회, 체험형 장애인스포츠버스 사업 운영**

전북장애인체육회는 대한장애인체육 지원으로 체험형 장애인스포츠버스 사업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도 인력 부족과 장애인체육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시작했다. 장애인스포츠버스는 버스 내에 설치된 체력측정 장비를 통해 장애유형과 기능별로 체력을 측정하고, 맞춤형 운동법을 지도해주며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해 스포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스포츠 홍보도 병행한다. 그 밖에도 체육관 또는 운동장을 활용하여 장소별·대상별 특징을 고려해 찾아가는 운동회, 어르신스포츠 체험 등을 운영 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